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Associations among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

저자  
(Authors) 원지영  
Ji Young Won

출처  
(Source) [청소년학연구 16\(9\)](#), 2009.10, 125-150 (26 pag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9\)](#), 2009.10, 125-150 (2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청소년학회](#)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61496>

APA Style 원지영 (2009).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9), 125-150.

이용정보  
(Accessed) 아주대학교  
202.30.30.\*\*\*  
2018/03/22 09:5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I. 서론

청소년기 학업 성취도는 상급학교 진학과 맞물려 개인의 학력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개인의 학력 수준이 이후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어진 바 있다. Robles(2009)가 2007년 U.S. Census Bureau 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학력 수준에 따라 개인이 일생 동안 획득하는 소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과 비교할 때 대학교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인종에 관계없이 생애 총 소득 수준이 100만 달러 이상 높았다(Robles, 2009). 한국인에게 있어서 역시 학업성취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앞으로 획득하게 될 성인기 사회경제적 지위를 예측하게 하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김경근, 2000; 방하남·김기현, 2002; 김태균, 2007; 윤현선, 2006).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전을 연구한 많은 연구(Blau et al., 2001; Coleman, 1988; Dyk & Wilson, 1999)에서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확충이 빈곤이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으로 인식되면서 청소년기 학업 성취도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왔다. Blau 외 2인(2001)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은 그 자녀의 학력과 성인기 직업 지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주목할 점은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의 성인기 직업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의 학력에 의해 매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청소년기 학업 향상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대물림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청소년기 학업을 통한 인적 자본 축적이 이후 삶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학업이 부진하거나 학업 중단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선별하고 이들을 위한 적절한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청소년 자녀의 학업 성취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구인회, 2003; 김광혁, 2007; 방하남·김기현, 2002; 신원영·강현아, 2005).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고 저소득층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학업 부진이나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부모-자녀 관계에 기초한 가정 내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진 청소년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긴밀한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지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통한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이제까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위기 청소년의 학업 증진을 위한 개입 방안을 다양화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패널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학업 성취도 간의 인과관계 규명에 있어서 횡단적 연구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 성취도

본 연구는 부모의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가하는 변수로 보았다. 또한 긴밀한 부모-자녀 관계에 기초한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부모의 경제적·인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먼저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개념을 정의하면, 경제적 자본은 가족의 물리적 자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가족의 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Coleman, 1988; Ferguson, 2006; Teachman et al., 1997). 반면 인적 자본이란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 능력을 결정하는 개인의 역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적 자본은 개인이 획득한 지식과 기술, 개인의 건강과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Becker, n.d.). 여기서 교육과 훈련은 인적 자본 증진을 위한 주요 투자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연구에서 개인의 교육 수준을 인적 자본 수준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Teachman, Paasch, &

Carver, 1997).

이제까지 많은 선행 연구들은 가족소득, 부모의 학력 및 취업 상태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학업 성취도를 비롯한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성인기 과업 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곽금주·김정미·유제민, 2007; 신원영·강현아, 2005; 표갑수, 1993; Bradley & Corwyn, 2002; Conger et al., 1992; Conger et al., 1994; Ferguson, 2006; McLoyd, 1998; ; Sirin, 2005). 예를 들어, 김광혁(2007)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업에 대한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학력이 대입 이상인 청소년들이 학업 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김광혁,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인이 청소년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2.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자녀의 학업 성취도

사회적 자본은 신뢰, 의무감, 소속감, 애정 등 사회 관계망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서 소속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Coleman, 1988, Furstenberg & Hughes, 1995; 신원영, 2008).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부모의 경제적·인적 자본과 자녀의 학업 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보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 기초한 가정 내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였다.

Coleman(1988, 1990)은 사회적 자본을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가정 외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으로 나누고 이들이 청소년들의 인적 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은 부모와 그 자녀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가 그 자녀에게 투자하는 시간, 노력, 자원, 에너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Coleman(1988, 1990)은 세대 간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 부모의 인적 자본과 자녀의 성장 발달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 시스템의 운영방식과 규범, 바람직한 행동 등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

한 정보를 자녀에게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는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기여할 수 있다(원지영, 2009). 반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매우 제한적인 상호작용만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양과 질 또한 제한될 것이다.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자녀의 학업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경근, 2000; 김태균, 2007; 안우환, 2003; Coleman, 1988, 1990; Edwards & Warin, 1999; Furstenberg & Hughes, 1995; McLanahan & Sandefur, 1994; Zick et al., 2001).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항상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Lutz & Crist, 2009; Ream 2003). 이는 사회적 관계의 구조(예; 친밀성, 접근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전되는 자원의 내용(예; 지지, 통제)에 따라 다른 연구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관계의 구조와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측면을 나타내는 변인으로는 가족의 유형(예; 한 부모 가정 대 양 부모 가정)과 미성년 자녀의 수 등을 들 수 있다. 즉, 자녀의 부모에 대한 접근 가능성 면에서 볼 때 한 부모 가정에 비해 양부모 가정의 자녀가 부모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보다 한 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학업 성취도 면에서 부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신원영·강연화, 2008; 이정환, 2003; Coleman, 1988; McLanahan & Sandefur, 1994). 이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부나 모가 가족의 생계는 물론 자녀의 양육까지 책임지게 됨으로써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가정 내 미성년 자녀의 숫자는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부모가 한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 자원의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의 척도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의 내용 측면으로 부모의 지지 및 통제와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훈육하는 경우 자녀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식·안우

환, 2003; 김영희, 2001; 김영희 2002; 신원영·강연화, 2008; Furstenberg & Hughes, 1995).

### 3. 이론적 모형과 연구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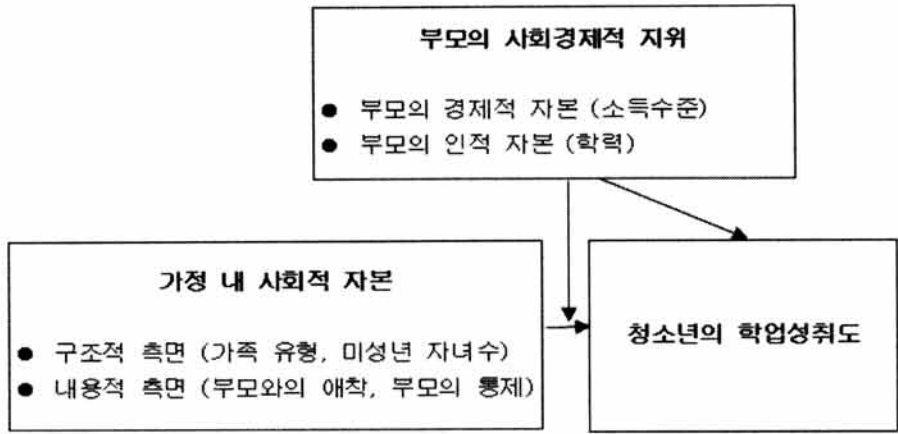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긴밀한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Coleman(1988, 1990)의 가설에 따르면, 학력이나 직업 등에 의해 평가되는 부모의 인적 자본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자녀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부모-자녀 간의 긴밀한 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자녀의 접근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긴밀한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의 내용과 양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강화되는 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이 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높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 수준은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일수록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약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 III. 연구방법

#### 1.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3년에서 2008년까지 1년간의 시간차를 두고 다섯 차례에 걸쳐 조사한 청소년패널데이터가 이용되었다. 청소년패널데이터의 표본은 12개 특별시, 광역시·도별 목표 표본 수에 따라 학교 수를 결정하고 그 수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된 각각의 학교에서 다시 1개의 학급을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하여 선택되었다. 단, 학교의 협조가 여의치 않은 경우나 우열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표본으로부터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2003년도 기준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 3,697명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가 표본으로 선택되었다.

본 연구는 5년에 걸쳐 매년 수집된 자료 중에서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두 차례에 수집된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이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표본이 상실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본 연구는 총 5년에 걸친 조사 과정에 모두 참여한 대상자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조사 대상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가 1차에서 5차까지의 조사에 모두 응답한 비율은 75.4%(2,601명)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패널데이터에 포함된 국어, 영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



역, 음악, 미술 과목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조사 내용을 활용하였다. 이 때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5차 조사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유형(예; 일반고, 자립형 사립고, 외고, 과학고, 공업, 농업, 상업)에 따라 청소년이 스스로 평가한 과목 별 학업 성취도가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일반 고등학교 문과와 이과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분석에 포함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전체 대상 청소년 수는 1,902명이었다.

## 2. 측정 도구

###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1) 부모의 학력

청소년패널데이터에서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교 졸업(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 이하(3), 전문대 졸업 이하(4), 4년제 대학 재학/졸업(5), 석·박사 과정 재학/졸업(6)의 여섯 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있어서 부모의 학력을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대상 청소년들을 부모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과 2년제 대학 재학 이상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 (2) 소득 수준

부모의 경제적 자원은 부모가 보고한 월평균 가구의 소득 수준에 의해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소득 분포에서 하위 25%에 해당하는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1로 코딩하고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월평균 소득 2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가구소득변수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가정에서의 사회적 자본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측면(부모와의 동거 여부, 형제·자매 수)과 내용적 측면(부모와의 애착 정도, 부모의 통제 정도)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통해 평가되었다.

#### (1) 부모와의 동거 여부

본 연구는 청소년이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가정 내 사회적 자본 수준을 평가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서 대상자들은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과 부모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부모 이외의 다른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 (2) 형제·자매 수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로 연구 대상 청소년이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 형제·자매 수가 포함되었다.

#### (3) 부모와의 애착 정도

부모와의 애착 정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묻는 여섯 개의 항목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에 의해 측정되었다. 척도의 항목들은 부모가 청소년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하는지, 청소년을 잘 이해해 주고,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지 등을 다루었다. 각 항목에 대해 청소년은 다섯 가지의 응답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여섯 개의 항목에 대한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사이의 애착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부모의 애착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의 신뢰도는 중학교 2학년 시기 조사(1차 조사)에서 Cronbach's alpha=0.85,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조사(5차 조사)에서 Cronbach's alpha=0.90로 나타났다.

#### (4) 부모의 통제 정도

부모의 통제 정도는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항목은 부모가 청소년 자녀가 외출 시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다. 각 항목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부모의 통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모 통제 척도의 신뢰도는 중학교 2학년 시기 조사(1차 조사)에서는 Cronbach's alpha=0.85,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조사(5차 조사)에서는 Cronbach's alpha=0.89로 나타났다.

### 3) 학업 성취도

과목별 학업 성취 정도를 나타내는 7개의 문항에 대한 총점을 통해 청소년 본인이 인지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였다. 각 문항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 음악, 미술의 학업 성취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으로는 '매우 못하는 수준'에 1점, '못하는 수준'에 2점, '중간'에 3점, '잘하는 수준'에 4점, '매우 잘하는 수준'에 5점이 부여되었다. 청소년이 스스로 평가한 학업 성취 수준 척도의 신뢰도는 중학교 2학년 시기 Cronbach's alpha=0.71, 고등학교 3학년 시기 Cronbach's alpha=0.65로 나타났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중 회귀 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부모-자녀 관계로 평가된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 연구하였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에 따른 가정 내 사회적 자본 정도가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 검증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의 활용에 앞서 회귀 모형들로부터 얻은 결과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의 전제 조건들(예: 이상점(outliers), 잔차의 정규성(normality of residuals), 등분산성(homoscedasticity),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먼저 연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이상점들이 관찰되는지 알기 위해 Cook's D 값이 활용되었다. 몇몇 사례에서 일반적인 분류(cut-off) 기준<sup>1)</sup>보다 높은 Cook's D 값을 보였지만 그 값이 0.07 미만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사정한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된 회귀모형들은

1) 일반적인 cut-off기준으로  $(2k+2)/n$ 이 이용되었다. 여기서 k는 분석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수의 숫자를 나타내며 n은 총 표본 수를 말한다.

다중 회귀 분석의 전체 가정들을 대체로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변수(interaction terms)를 포함하지 않은 모든 분석모형에서 VIF 값이 2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도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회귀 분석 모형들로부터 얻은 결과는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대체로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 4.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는 청소년 스스로의 자기 평가에 의해 측정되었다. 따라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이 인지한 학업 성취도는 청소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교육의 주요 목적이 대학 진학인지 취업인지에 따라 각 과목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일반 고등학교 문과 또는 이과에 재학 중인 연구대상자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 IV. 결과분석

#### 1.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 1) 인구학적 특성

연구 대상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연령 분포를 보면 조사 대상자들 중 78%가 1989년생, 22%가 1990년생이었다. 남녀 간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49%, 여학생이 51%로 나타났다.

##### 2)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 중 아버지의 학력에 관한 질문에 대해 약 9% 정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대상자의 42%가 고

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제나 4년제 대학에 재학한 경험이 있거나 수료 또는 졸업하였다고 응답한 아버지가 전체 표본 중 47%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에 있어서는 13% 정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반면, 과반수인 약 58%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25%로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아버지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월수입은 평균 309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월수입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는 소득 수준이 다른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소수의 가구에 의해 약간 높게 추정된 경향이 있다. 중간값(median)을 보면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이었다.

### 3)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의 실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변수로서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고,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그 구조적 요인(부모와의 동거 여부, 미성년 형제·자매 수)과 내용적 요인(부모-자녀 사이의 애착, 부모의 통제 정도)으로 평가하였다.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족구조에 있어서는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93%)을 차지하였다. 한 부모 가족의 청소년들은 전체 응답자 중 약 2%, 부모 이외의 친인척과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전체 응답자 중 1% 미만을 차지하였다.

가족구조와 관련된 변수 중 하나로 연구 대상 청소년들의 형제·자매 수를 보면 약 7%의 청소년들이 형제나 자매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약 67%가 한 사람의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약 19%의 연구 대상 청소년들이 두 명의 형제·자매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3명 이상인 경우는 3% 미만에 그쳤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와의 애착에 대한 6항목의 총점으로 평가되는 애착 척도의 평균값이 20.39로 나타났고, 부모의 통제 정도를 나타내는 4가지 항목의 총점으로 평가되는 통제 척도의 평균값은 13.16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인구학적 특성		n	%		
출생년도	1988	2	0.1		
	1989	1491	78.4		
	1990	409	21.5		
성별	남	929	48.8		
	여	973	51.2		
사회경제적 변인		n	%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재학 이하	168	8.8		
	고등학교 졸업	792	41.6		
	전문대 재학 이상	894	47.0		
	결측치	48	2.5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재학 이하	255	13.4		
	고등학교 졸업	1108	58.3		
	전문대 재학 이상	480	25.2		
	결측치	59	3.1		
평균 월수입 (만 원)	200만 원 미만	340	17.9		
	200만 원~300만 원 미만	537	28.2		
	300만 원~400만 원 미만	465	24.4		
	400만 원 이상	476	25.0		
	결측치	84	4.4		
	중간값	300			
	평균	309			
표준편차	193				
가정 내 사회적 자본 변수		n	%		
부모와의 동거	부모 모두와 동거	1771	93.1		
	부나 모와 동거	45	2.4		
	부모 모두와 비동거	11	0.6		
	결측치	75	3.9		
형제자매 수	0명	131	6.9		
	1명	1270	66.8		
	2명	363	19.1		
	3명 이상	53	2.9		
	결측치	85	4.5		
부모애착 척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900	20.39	4.51	6	30
부모통제 척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902	13.16	3.40	4	20

## 2.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 1) 중학교 2학년 시기 학업 성취도에 관한 분석 결과

청소년의 출생 연도와 성별을 통제한 후 부모의 학력과 소득 그리고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중학교 2학년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 검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이 이루어졌다(표 2 참조).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부모의 학력과 가구의 평균 소득이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자각한 학업 성취도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성된 회귀 분석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에 비해 아버지가 대학교육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 점수가 약 0.9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대학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학업 성취도에서 약 1.1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있어서는 가구의 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청소년이 200만 원 이상인 청소년보다 학업 성취도에서 약 0.9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인지한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중 90년도에 출생한 청소년들이 88년도나 89년도에 출생한 청소년들보다 학업 성취 척도의 총점에서 약 0.6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 A-1에 사회적 자본 변수인 부모와의 동거 여부, 형제·자매의 수, 부모 자녀 사이의 애착 정도, 부모의 통제 정도를 추가하여 모형 A-2를 구성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보면 청소년 자녀의 학업 성취도는 가정 내 사회적 자본 변수 중 부모와의 동거 여부나 동거 중인 형제·자매의 수와 같은 구조적 측면보다는 부모와의 애착이나 부모의 통제 정도 등 그 내용적 측면과 더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과 그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강할수록, 그리고 청소년의 가정 밖 생활에 대한 부모의 통제 정도

가 강할수록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래 표 2를 보면 가정 내 사회적 자본 관련 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된 모형 A-2의 결과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여전히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나 부모의 학력 변수들은 모형 A-1과 비교하여 그 회귀계수에 약간의 감소가 있었을 뿐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는 독립적으로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사회적 자본 변수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여 모형 A-3을 구성하였다. 이 때 모든 상호작용 변수의 회귀계수의 유의수준이  $p=0.0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부모와 긴밀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가정 밖 활동에 대해 부모의 통제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다. 이는 세대 간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보편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lt;표 2&gt; 중학교 2학년 시기 학업 성취도

변수	모형A-1		모형A-2		모형A-3	
	계수(b)	표준오차	계수(b)	표준오차	계수(b)	표준오차
(상수)	22.40 ***	0.20	17.03 ***	0.79	18.09 ***	1.45
성별(여=1)	0.26	0.20	-0.05	0.20	-0.05	0.20
출생년도 (90=1)	-0.59 **	0.24	-0.50 *	0.24	-0.50 *	0.24
가구소득 (1=200만 원미만)	-0.92 ***	0.27	-0.77 **	0.28	-0.48	2.05
아버지학력 (1=2년제대학이상)	0.90 ***	0.24	0.73 **	0.24	-0.96	1.94
어머니학력 (1=2년제대학이상)	1.09 ***	0.27	0.96 ***	0.27	0.13	2.07
형제·자매 수			-0.09	0.16	-0.10	0.25
부모와의 동거			0.88	0.57	0.98	1.10
부모와의 애착			0.11 ***	0.03	0.05	0.04
부모의 통제			0.19 ***	0.03	0.21 ***	0.06
소득*형제자매수					-0.47	0.40
소득*부모동거					0.27	1.38
소득*부모애착					-0.01	0.08
소득*부모통제					0.02	0.10
부학력*형제자매수					-0.25	0.43
부학력*부모동거					0.56	1.41
부학력*부모애착					0.08	0.06
부학력*부모통제					-0.01	0.08
모학력*형제자매수					0.79	0.49
모학력*부모동거					-1.61	1.53
모학력*부모애착					0.10	0.07
모학력*부모통제					-0.05	0.09
n	1760		1706		1706	
F(df)	20.63(5,1754)***		23.28(9,1696)***		10.77(21,1684)***	
R <sup>2</sup>	0.06		0.11		0.12	
Adj R <sup>2</sup>	0.05		0.11		0.11	
Root MSE	4.17		4.04		4.04	

\* p&lt;0.05, \*\* p&lt;0.01, \*\*\* p&lt;0.001

## 2) 고등학교 3학년 시기 학업 성취도에 관한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학업 성취도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고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중학교 2학년 시기 사회적 경제적 변수와 가정 내 사회적 자본 변수로 4년 후인 고등학교 3학년 시기 학업 성취도를 예측해 보았다.

모형 B-1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 중 어머니의 학력만이 청소년의 고등학교 3학년 시기 학업 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들에 비해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재학 이상인 경우 청소년의 고등학교 3학년 시기 학업 성취도가 평균 1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머니의 학력과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가정 내 사회적 자본 변수들을 포함한 모형 B-2의 결과에서도 동일하였다(표 3 참조).

표 3의 연구 결과를 보면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측정된 가정 내 사회적 자본 변수들 중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부모의 통제 정도가 고등학교 3학년 시기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중학교 2학년 시기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했던 청소년들이 한 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었던 청소년들 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업 성취도에서 평균 2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1.9, p<0.01$ ).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가정환경이 가구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청소년 후기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중학교 2학년 시기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고등학교 3학년 시기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모형 B-2에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여 모형 B-3을 구성하였다.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모형 B-3의 연구 결과는 양부모 가족의 형태가 청소년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양부모 가족 형태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어머니의 학력이 2년제 대학 재학 이상인 청소년들 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b=-4.09, p<0.05$ ). 즉,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그 학업 성취도에 큰 차이를 보였던 것에 반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학업 성취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모형 B-3의 결과에 따르면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수와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정의 경우 형제·자매 수의 증가는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 월평균 소

특이 2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3> 고등학교 3학년 시기 학업 성취도 1

변수	모형B-1		모형B-2		모형B-3	
	계수(b)	표준오차	계수(b)	표준오차	계수(b)	표준오차
(상수)	20.14 ***	0.24	15.55 ***	0.98	15.54 ***	1.62
성별(여=1)	0.46	0.24	0.21	0.25	0.23	0.25
출생년도 (88,89=1)	0.02	0.29	0.11	0.30	0.05	0.30
가구소득 (1=200만 원미만)	-0.35	0.33	-0.22	0.34	-2.65	2.40
아버지학력 (1=2년제대학이상)	0.51	0.29	0.33	0.30	-0.47	2.35
어머니학력 (1=2년제대학이상)	1.05 ***	0.34	1.06 **	0.34	3.64	2.57
형제·자매 수			0.09	0.21	0.39	0.33
부모와의 동거			1.90 **	0.70	1.69	1.16
부모와의 애착			0.04	0.03	0.01	0.05
부모의 통제			0.15 ***	0.04	0.19 **	0.07
소득*형제자매수					-1.26 *	0.51
소득*부모동거					1.40	1.57
소득*부모애착					0.11	0.10
소득*부모통제					0.03	0.13
부학력*형제자매수					0.25	0.55
부학력*부모동거					1.93	1.65
부학력*부모애착					-0.02	0.08
부학력*부모통제					-0.07	0.11
모학력*형제자매수					-0.55	0.64
모학력*부모동거					-4.09 *	1.88
모학력*부모애착					0.12	0.09
모학력*부모통제					-0.03	0.12
n	1009		979		979	
F(df)	6.53(5,1003)***		7.05(9,929)***		3.95(21,957)***	
R <sup>2</sup>	0.03		0.06		0.08	
Adj R <sup>2</sup>	0.03		0.05		0.06	
Root MSE	3.86		3.83		3.81	

\* p<0.05, \*\* p<0.01, \*\*\* p<0.001

모형 B-3의 연구 결과는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가설과 상반된다. 즉,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역할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3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보다는 유지되는 경향이 강한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실제로 중학교 2학년 시기 학업 성취도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 학업 성취도와 대체로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Pearson Correlation=0.45,  $p < 0.01$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시기 학업 성취도를 통제한 이후 가정 내 사회적 자본 변수(형제·자매 수, 부모와의 동거,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통제)와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가정 내 사회적 자본 변수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기간이 흐른 후에도 유지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표 4 참조).

표 3과 표 4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중학교 2학년 학업 성취도를 통제한 이후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시기 학업 성취도를 회귀모형에 포함한 경우  $R^2$ 의 값이 두드러지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가정 내 사회적 자본 변수들의 회귀계수와 그 유의수준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형 B-4에서 어머니의 학력, 부모와의 동거 여부, 그리고 부모의 통제가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형 B-2에서도 동일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변수들을 포함한 모형 B-5에서 사회적 자본 변수 중 하나인 형제·자매의 수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b = -0.95$ ,  $p < 0.05$ ), 부모와의 동거 여부 역시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 따라 학업 성취도와 상관관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b = -3.44$ ,  $p < 0.05$ ). 이는 모형 B-3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lt;표 4&gt; 고등학교 3학년 시기 학업 성취도 2

변수	모형B-4		모형B-5	
	계수(b)	표준오차	계수(b)	표준오차
(상수)	9.01 ***	1.00	8.69 ***	1.55
중2학업성취도	0.39 ***	0.03	0.39 ***	0.03
성별(여=1)	0.19	0.23	0.21	0.23
출생년도 (88.89=1)	0.32	0.27	0.25	0.27
가구소득 (1=200만 원미만)	0.06	0.31	-2.51	2.19
아버지학력 (1=고졸이하)	0.03	0.27	-0.36	2.13
어머니학력 (1=고졸이하)	0.62 *	0.31	3.12	2.33
형제·자매 수	0.13	0.19	0.40	0.30
부모와의 동거	1.64 **	0.64	1.48	1.05
부모와의 애착	-0.01	0.03	-0.03	0.05
부모의 통제	0.08 *	0.04	0.11	0.06
소득*형제자매수			-0.95 *	0.47
소득*부모동거			0.71	1.43
소득*부모애착			0.14	0.09
소득*부모통제			0.02	0.12
부학력*형제자매수			0.35	0.50
부학력*부모동거			1.85	1.50
부학력*부모애착			-0.04	0.07
부학력*부모통제			-0.07	0.10
모학력*형제자매수			-0.95	0.58
모학력*부모동거			-3.44 *	1.71
모학력*부모애착			0.08	0.08
모학력*부모통제			0.02	0.11
n	979		979	
F(df)	28.20(10,968)***		13.76(22,956)***	
R <sup>2</sup>	0.23		0.24	
Adj R <sup>2</sup>	0.22		0.22	
Root MSE	3.48		3.47	

\* p&lt;0.05, \*\* p&lt;0.01, \*\*\* p&lt;0.001

## V.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한 가정 내 사회적 자본 정도가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는 데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지 살펴보았다. 또한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의 학업 성취

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의 인적·경제적 자본이 풍부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변수들 중 특히 어머니의 학력은 청소년 후기에까지 지속적으로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어머니의 인적 자본 정도가 자녀의 인적 자본 축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관심과 자녀의 생활에 대한 적절한 통제는 청소년의 학업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사이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양부모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가족 유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 면에서 우세하였다. 이는 양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접근성이 더 높고 따라서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적 상관관계는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낮은 경우 더욱 두드러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는 부모의 경제적·인적 자본이 낮은 경우 부모가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자원, 에너지 정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자원의 객관적인 양 뿐만 아니라 자녀가 인식하는 자원의 주관적인 가치 또한 중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인적 자원이 부족한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학업 수행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는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향상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긴밀한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동원될 수 있는 경제적·인적 자원이 양이 제한된 저소득층 가정에서도 긴밀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개입은 학업 성취도의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을 막는데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측면이 부모와의 동거 유무와 동거 중인 미성년 형제·자매 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되었고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사회적 지지와 통제의 다양한 유형과 그 정도에 대한 구체적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의 주관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나은 척도의 활용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는 가정 내 사회적 자본 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금주, 김정미, 유지민(2007). 만 3세 아동에 대한 빈곤, 부모변인, 가정환경 및 아동 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0(3), 83-98.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 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 5-32.
- 김경근(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 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1), 21-40.
- 김경식, 안우환(2003). 학업성취 요인으로서의 가정 내 사회적 자본 탐색. **교육학논총**, 24(1), 81-99.
- 김광혁(2007).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도 발달케 적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8(5), 127-141.
- 김영희(2001).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와 자녀의 학교적응. **한국가정학회**, 39(1), 179-190.
- 김영희(2002).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3(1), 1-14.
- 김태균(2007).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제 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05-824.
- 방하남, 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신원영, 강현아(2008).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4), 57-87.
- 안우환(2003). 가정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교육**, 30(3), 161-184.
- 원지영(2008).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과도기 사회적 자본의 역할: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15, 5-20.
- 윤현선(2006).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사회적 자본 이론과 가족매개모델의 비교 검증. **청소년학연구**, 13(3), 107-135.
- 이정환(2003). 모자가정 아동의 학업 능력: 양부모 가정 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가족과 문화**, 15(2), 61-80.



표갑수(1993). 아동학대의 원인론과 대처방안. *한국아동복지학*, 1, 156-177.

- Becker, G. (n.d.). *Human capital*. Retrieved September 9, 2008, from <http://www.econlib.org/library/Enc/HumanCapital.html>
- Blau, P. M., Duncan, O. D., & Tyree, A.(2001). The process of stratification. In D. B. Grusky (Eds.), *Social stratification: Class, race, and gender*. pp. 390-409. Boulder, CO: Westview Press.
- Bradley, R. H. & Corwyn, R. F.(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371-399.
- Coleman, J.(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oleman, J.(1990). *The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nger, R. D., Conger, K. L.,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 Simons, R. L.(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2), 541-561.
- Dyk, P. H. & Wilson, S. M.(1999). Family-based social capital considerations as predictors of attainments among Appalachian youth. *Sociological Inquiry*, 69(3), 477-503.
- Edwards, A. & Warin, J.(1999). Parental involvement in raising the achievement of primary school pupils: Why bother?. *Oxford Review of Education*, 25(3), 325-341.
- Ferguson, K. M.(2006). Social capital and children's wellbeing: a critical synthesis of the international social capit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5(1), 2-18.
- Furstenberg, F. F. & Hughes, M. E.(1995). Social capital and successful

- development among at-risk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580-592
- Lutz, A. & Crist, S.(2009). Why do bilingual boys get better grades in English-only America? The impacts of gender, language and family intera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of Latino/a children of immigrants. *Ethnic and Racial Studies*, 32(2), 346-368.
- McLanahan, S. & Sanderfur, G.(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s: What Hurts, What Help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Loyd, V. C.(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 Ream, R.(2003). Counterfeit social capital and Mexican-American underachievement. *Education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5(3), 237-262.
- Robles, B. J.(2009). Exploring the wealth returns to Latino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Journal of Hispanic Higher Education*, 8(1), 5-22.
- Sirin, S. R.(2005). Socioeconomic status and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5(3), 417-453.
- Teachman, J. D., Paasch, K., & Carver, K.(1997). Social capital and the generation of human capital. *Social Forces*, 75(4), 1343-1359.
- Zick, C. D., Bryant, W. K., & Österbacka, E.(2001). Mother's employment, parental involvement, and the implications for intermediate child outcomes. *Social Science Research*, 30(1), 25-49.

-Abstract-

## **Associations among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Won, Ji Young\*\***  
**Kangnam University**

Utilizing the longitudinal data from Korea Youth Panel Survey, this study explores how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d 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 are associated with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if the associations between 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 and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differ by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The results support that adolescents from low socioeconomic backgrounds tend to perform poorly academically. In addition, the family based social capital created by parental involvement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particular those who have parents with lower socioeconomic status. Overall, the study suggests that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from low socioeconomic backgrounds can be improved by enhancing 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 Therefore, interventions that are designed to improve the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ce and preventing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ocioeconomic status in the long run.

**\* key words : Socioeconomic status, 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 academic achievement, parent-child relationships**

---

\*\* Visiting Professor, College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jywon@kangnam.ac.kr)